

모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줄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고 지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길은 무엇일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특히 아이들이 열 살 정도가 되어 청소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보다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선호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게 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은 대부분이 좋은 가족관계를 형성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skills) - 의사소통기술, 상대방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기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기술 등 - 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유용성에도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별로 효과에 대한 검증 자체도 모두 이뤄지지 않아서 시간적인 제약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갖는 부모들에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에 가족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습득했던 기술들은 회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구의 폭력과 가족프로그램 관리는 그 유용성에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브랜디윈 캠퍼스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모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방향성과 가치에는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부모와 가족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남긴다. 인간의 행위와 마음의 변화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에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만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로 클 가능성을 줄이고 우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결국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폭력과 관련된 사회과학의 중요한 성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됐을 때만이 부모와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나아가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헤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해낼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더 적극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부모를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그 노력을 써야 할 것이다. 강력한 사회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박세영 역 | 줄리 IVP 퍼블리싱

## 과학신학

유정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왜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도킨스의 신(Dawkins' God, 부제: 리처드 도킨스 뒤집기)』과 『도킨스의 망상 (Dawkins Delusion 부제: 민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로 진숙한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저서『과학신학, The Science of God』이 지난 연말 IVP를 통해 번역 출간되었다.

원서의 출간일이 2004년 6월 21일이나, 2004년 12월 6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신』이나 2007년 5월 25일에 출간된 『도킨스의 망상』보다 먼저 출간되었다. 그런데 왜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보다 늦게 이제야 소개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내가 기독교대학 재플이나 기독교어리 그리고 각종 기독교인 모임 등에서 강의할 때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했지만 『과학신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은 현재 많은 젊은 지식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쳐온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 공격하는 형식을 빌려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였다. 반면, 『과학신학』은 과학과 신앙의 문제를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는 형식을 취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렵다.

### 내 지역 속 알리스터 맥그래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영국 유학 시절인 1991년 무렵이다. 그때 나는 옥스퍼드대학 동물학과에서 행동생태학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그동안 연구해 오던 생태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전공하려고 몇 분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은 옥스퍼드 위클리프 신학교(Wycliff Hall) 모임에 참석했다가 당시 학장님으로 계셨던 Dr. R. T. France 교수님과 나의 진로를 바꾸는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그때 Dr. France 교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위클리프신학교에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가 계시는데 그도 옥스퍼드대학에서 생물학학을 전공하고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성공한 분이라고 한 번 만나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때 잠시 영국을 방문했던 영동포교회 방지일 원로목사님과 장춘단교회 홍순우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행동생태학을 공부하기로 하면서 그와 만나진 못했지만, 그 후 나는 그의 책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의 과학신학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내가 속해 있던 옥스퍼드 동물학과 리처드 도킨스 교수의 책들을 반박하는 책들을 내면서 그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의 서평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쉽게 썼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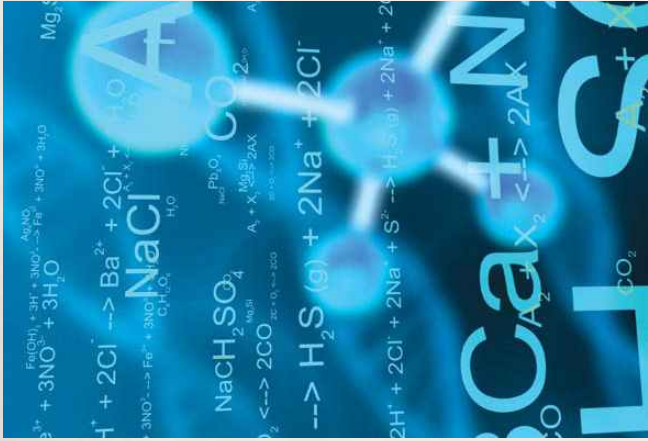
머리말에서 이 책이 신학적 방법론을 다룬 '과학적 신학, A Scientific Theology: 2001-2003', 3부작을 일반인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부 서설만 보더라도 신학과 자연과학이 대화하여야 하는 존 재론적 당위성과 과학적 신학의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 는데 연구방식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이어서 한다고 되 어 있지만, 이 책 끝 부분인 [4부 이론] 부분까지 읽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부 자연] 에서는 기독교에서의 자연과 창조설미 그리고 자연신학 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자연에 관한 기독교 전통 기독교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자연에 관한 기독교 전통 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지만, 이 책은 여기에 대한 정답 을 바로 내놓지 않는다. 기독교 창조설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교리가 자연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 해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런 유의 책에 익숙하지 않 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부 실재]에서는 자연신학과 전통을 조율하는 종교적 추 구와 기독교 전통의 합리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알리 스테 맥그라스는 자연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 한 이야기'를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독교 전통이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전통과 생산적인 대화 를 나눌 수 있는 주석적 도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조하 는 자연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부 이론]에서는 교조적이지 않은 기독교의 본체론과 함 께 교리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교리의 발전에 대해 다루 고 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유정희**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행동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행동과 사회)〈한겨레〉, 〈경향신문〉 등을 강의하고 있다. (사)한국조류학회 회장이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포럼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



대한 "최선의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무엇이 최선의 설명인지? 다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알리스테 맥그라스의 '과학신학'은 분명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기독교와 과학의 갈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요약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자연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분명 좋은 참고도서가 될 것이다. 진지하게 하나님과 자연과학과의 관계를 연구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⑥



**금식**

스캇 맥나이트 지음 | 인성원 옮김 | IVF 퍼블

⑥ 최현일(홍익대학교)·김희정(연세대학교)·김희정(연세대학교) 연구원장

좋은 책을 만났다. 스캇 맥나이트의 『금식』이라는 책이다. 제목이 나의 시선을 책에 머물게 하였다. 금식,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 금식해본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도 되지 않는 나에게 IVF에서 겪던 시리프스로 나온 이 책의 제목은 금식이라는 의식 앞에서 좌절감을 느꼈던 나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다.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했던 나는 교회에서 금식하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다. 금식해야 남들 보기에도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남들이 금식할 때 나는 좌절감을 가졌다. 지금까지도 풀기 어려웠던 이 문제를 저자는 명쾌하게 성경적 근거와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풀어 주었다. 올바른 금식의 큰 그림을 알려주었다.

저자는 금식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몸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의 온전한 유기적 통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유기적 통합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몸과 정신, 영혼과 마음 등, 모든 인간의 측면들이 본래 하나라는 것이다. "성경은 몸을 그릇에 담듯이 몸이 영혼을 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이며 동시에 몸이다. 즉 기독교는 인간의 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원론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을 가진 하나의 존재일 뿐 외면과 내면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몸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회복하려는 저자의 설명은 금식은 유기적 통합체인 우리 몸의 영성임을 강조한다. 즉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몸과 영혼이 하나인 원래의 의미로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식은 진 존재로서의 반응이며, 통합된 영성의 표현이다. 금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진정한 존재로서의 반응의 하나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선택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금식은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금식을 정의한다. 살아가면서 어렵고 무엇인가에 진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반응임을 일깨워준다. 이 말은 금식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인데, 나의 결단적 반응임을 알려준다. 내가 원하는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결단적인 반응으로서의 금식이라는 서술은 금식에 대한 내 생각에 번화를 가져왔다. 어떤 목적을 위한 금식의 행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내 생각은 저자의 성경적 해석에 힘입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다.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떤 일이 있기에 금식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진고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금식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 몸의 통합적인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수술을 주로 하는 의로서 나는 수술을 진후환 환자들의 이야기를